글로컬리즘과 언어 정책

최동주*

〈차 례〉

1. 머리말
2. 국어 정책에 대한 검토
  2.1. 표준어 정책과 한글맞춤법
  2.2. 국어발전 기본계획
3. '문화 창조의 동력'으로서의 국어
4. 맺음말

【국문초록】

언어는 개방적이며 동적인 현상으로,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요소이다. 언어에 대한 제약은 우리의 삶에 대한 제약이라는 인식 하에서, 언어 표준화는 최소한의 것이어야 한다. 소통의 효율화가 평등에 우선할 수 없으며, 혼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전 국민에게 학습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비경제적이다. 우리나라의 국어정책은 표준어 정책의 확대를 핵심으로 하고 있으나, 국어가 '문화 창조의 동력'이 되고, '한민족의 언어에서 세계 속의 언어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지배/종속 관계

*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를 해소를 지향하는 글로컬리즘적 사고에 좀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주제어: 글로컬리즘, 언어 정책, 표준어규정, 한글맞춤법, 국어 발전 기본계획.

1. 머리말

언어는 기본적으로 개방적, 동적 현상이며, 화자와 상황에 따라 무한한 변이를 보인다.[1)]

언어가 개방적이며 동적 현상임은 새로운 단어와 문법 현상이 끊임없이 생겨난다는 사실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Bybee(2001: 8-9)는 언어의 사용이 새로운 표상을 기억에 남기거나 이미 있던 표상의 힘을 강화함으로써,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더라도, 표상에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는 언어가 화자에 의해 사용될 때마다 변화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Larsen-Freeman 1997:148, Hopper 1998:170, de Bot 2008: 169).

언어가 화자에 의해 사용될 때마다 변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은 언어가 궁극적으로 개인적 현상임을 의미한다. 이러한 견해는 언어능력이 공통적이라고 가정하는 Chomsky도 피력한 바 있다.

> "나는 '언어'라는 용어를 개인적 현상, 즉 특정한 개인의 마음/두뇌에 있는 체계를 지칭하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싶다. 만일 우리가 자세하게 조사한다면 어떠한 두 사람도, 심지어 똑같은

1) 언어의 이러한 특성에 관한 논의는 최동주(2009)에 언급된 바를 요약한 것이다.

사회 환경에서 자란 일란성 쌍둥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의미에서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두 사람은 그들의 언어가 충분히 유사한 범위 내에서만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Chomsky(1988:36)

한편, 하나의 언어 사회 안에서 언어가 의사소통이 가능하도록 충분하게 공통적인 것은 적응(adaptation)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Mohanan(1992:654)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언어 공동체 내에서 문법들은 서로 적응한다. 성장하는 개인에 나타나는 어떤 패턴들은 일상적인 의사소통에서 드러나는 반면(overt), 어떤 패턴들은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드러나지 않는다(covert). … 한 언어 공동체 내에 속하는 개인들 사이에 overt pattern은 모두 동일하며, covert pattern에서는 자유로운 변이를 보일 수 있다. 언어발달 과정에서 입력 자료와 충돌하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없는 overt pattern은 소멸하나, covert pattern은 유지될 수 있다."

언어의 적응은 사회적 가치의 수용을 수반한다. 언어는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으로만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언어 사용자가 속해 있는 사회를 반영하는 것이다. '언어와 성(gender)'에 관한 논의를 불러일으킨 Robin Lakoff는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만큼 언어도 우리를 사용한다(Language uses us as much as we use language)'라고 한 바 있다(Lakoff 1975=2004: 39). 언어는 때로 사용자의 의도에 상관 없이 그 사용자를 규정하는 단서로 활용된다. 그 결과 언어는 갈등과 소외의 근원이 되기도 하며, 그 자체가 권력이 되기도 한다.

언어 정책이 의사소통 수단으로서의 언어만 고려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사실 언어의 표준화와 표준어의 등장은 근대 유럽의 강한 정치적 내셔널리즘의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으

며, 언어 진화의 자연적 소산이 아니라, 의식적인 계획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Romaine 1994:88). 국어의 어문규범 역시 이 점에서 예외가 아니다.

오늘날은 세계화(글로벌리제이션)의 추세 속에서 로컬리즘이 대두되면서, 양자를 접목한 글로컬리즘(지방의 중앙화, 또는 중앙과 지방의 지배/종속 관계 폐지 추구)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으로 특징화될 수 있다(장문석 2009). 2006년 5월, 지역어 연구 모임인 '탯말두레'에서 표준어규정과 국어기본법이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낸 바 있는데,[2] 이러한 움직임은 언어에 있어서도 글로컬리즘의 현실이 이미 존재함을 보여준다.[3]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우리나라의 언어 정책(이하 '국어 정책'이라 줄임)이 쉽게 어우러질 수 있을까? 본고의 목적은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국어 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숙고해 보는 데 있다.

글로컬리즘의 본질적인 핵심은 '지방과 지방의 연결', 즉 '인터로컬리즘'(interlocalism)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홍순권 2009, 장문석 2009), 언어 문제는 다른 사회문화적 현상이나 경제적 현상과는 향유 및 소통 방식에 차이가 있으며, 중앙과 지방의 지배/종속 관계가 다른 현상에 비해 좀더 명백하게 표면화되어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지배/종속 관계와 관련한 언어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아울러 본고에서는 국어 정책의 기본적

2) 이 사건이 특기할만 한 것은 표준어 문제가 법정에 서게 되었다는 데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5월 28일 표준어를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규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서울의 역사성과 지리적 위치, 인구 등에 비춰볼 때 서울말을 표준어로 삼는 것을 기본권 침해라 보기 어렵'고, '공문서를 표준어로 쓰지 않으면 의사소통에 혼란이 생길 수 있으며, 사적인 생활에서는 지역 언어를 써도 아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글로컬리즘'이라는 말 이전에 글로컬리즘의 현실이 존재함과 그 사례들에 대해서는 장문석(2009)를 참조하기 바란다.

인 방향에 대해서만 검토할 뿐 세부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도 미리 밝혀 둔다.

2. 국어 정책에 대한 검토

2.1. 표준어 정책과 한글맞춤법

국어의 어문규범에는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외래어표기법, 로마자표기법 등이 있으며, 국립국어원에서 편찬한 표준국어대사전 역시 이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중 표준어규정은 이미 오래 전부터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표준어를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한 것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는데,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임규홍(1995), 김정대(2006), 이태영(2006)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일반적으로 표준어는 방언차로 인한 의사소통의 장애를 막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간주된다(민현식 1999: 649).[4]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방언차가 의사소통에 장애가 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언을 사용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소통이 어려워지는 일이 없다는 사실은 이를 명백히 보여 준다. '표준어는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표준어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조태린(2007: 221)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느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

4) 이기갑(2003: 20)에서도 '표준어가 방언 간의 차이를 해소하여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인위적, 교육용 언어라면, 방언은 이러한 인위적 표준화가 시도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언어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방언 사용이 우리의 사회생활에 제한을 가하는 것은 의사소통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측면에 있다. 표준어를 사용하지 않은 데서 오는 기회의 제한, 차별 등이 그것이다. Romaine(1994: 87)에서 지적된 바 있듯이 언어의 표준화는 '불평등의 주동인'(one of main agents of inequality)의 하나이다. 방송과 같은 언론직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표준어 사용이 요구되며, 수능 시험을 비롯한 각종 시험에서도 표준어 지식을 묻는다. 지방 출신자들은 서울 출신자들과 달리 표준어를 더 학습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5] 예를 들어 어렸을 때 익힌 억양과 같은 요소를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물론 표준어가 전혀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공문서 작성이나 교육 등과 같은 공적인 영역에서는 표준어가 필요하다. 그러나 표준어로 인한 사회생활의 불평등, 압박감 등은 없어야 할 것이다. 소통에 큰 장애가 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원활한 소통'을 위해 '불평등'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결국 표준어 정책은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축소되고 최소한이어야 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표준어 정책의 확대는 국민의 의식을 바꾸어 놓음으로써 방언이 들어설 수 있는 영역을 축소시킨다. 이를 잘 보여 주는 것이 국립국어원에서 2005년에 실시한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방송에서 '대담 토론자들은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는 항목에 대해 '대체로 그렇다'로 답한 응답자가 47%, '매우 그렇다'로 답한 응답자가 37.6%로, 긍정적 답이 무려 84.6%에 이

5) 이와 관련하여 김보경(2004: 64)의 다음 언급은 시사적이다.
"아마도 '그들'은 알 수 없을 것이다.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나의 말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교정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는 것, 그 교정의 요구에 대해 느끼는 압박감과 쏟아야 하는 노력이 신입 아나운서들의 그것보다 덜하지 않다는 것을 말이다."

른다(국립국어원 2005: 134). 표준어가 권력화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결과다. TV의 대담 프로그램이나 토론회에서마저 방언이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6]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 '텔레비전의 대담 또는 토론 프로에 나온 토론자가 표준어를 사용하지 않고 출신 지역 방언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을 가장 크게 받으십니까?'라는 질문에 '방언을 통해 자신의 지역을 드러내는 것 같아 보기가 좋지 않다'에 응답한 사람이 24.4%, '토론에 나오는 사람이 왜 표준어를 사용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에 응답한 사람이 31.4%에 이르렀다.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방언을 사용하는 것이 더 솔직해 보인다'는 18.3%에 그쳤으며,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해 답답하다'는 4.7%에 불과했다. 방언 사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는 소통에 장애가 되어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요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 출신인 화자가 방언을 사용하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다른 의도가 있어서가 아닐 텐데도 이처럼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표준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대담이나 토론 프로그램에도 출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 언어 정책은 표준어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방언에 대한 국민의 이러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어 놓는 데 더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 있듯이 언어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으며, 화자마다, 상황에 따라 변이를 보인다. 이를 표준화하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더욱이 언어가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초적인 요소라는 점을 고려하면, 언어에 대해 제약를 가하는 것은 우리의

---

6) 이 조사의 16번 항목은 '방언의 존속 또는 폐지에 관한 의견'을 묻고 있는데, '방언은 언어통일에 장애가 되므로 점차 없애야 한다', '방언은 지역감정을 유발하므로 점차 없애야 한다' 등 '방언 폐지'에 동의한 사람은 가구 소득이 가장 많은 답변자들(250만원 이상)에서 21.5%(각각 16.9%와 4.6%)로 가장 높게 나왔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방언 존속에 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초적인 삶에 제약을 가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표준어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적, 사회적 상황이 있을 수 있으나, 오늘날의 우리 사회가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떠한 영역이 그러한지 숙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표준어 정책의 일방적 확대는 지방을 더욱 변두리로 내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지배/종속 관계를 강화하며, 언어 사용으로 인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7]

한편, 한글맞춤법(이하 '맞춤법'으로 줄임)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나, '너무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지적이다. 맞춤법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표기가 사람에 따라 다르다면 그 뜻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같이'를 '가치, 갇치, 같치' 등으로 쓴다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깨끗이'를 '개끗히'로 쓰면 어떨까? 아무런 오해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끗히'로 쓰면 틀리고 '깨끗이'로 써야만 맞다. 이와 관련하여 '깨끗이'로도 쓸 수 있고 '깨끗히'로도 쓸 수 있다면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뜻의 이해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어떤 혼란이 일어난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사실 혼란은 하나의 표기만 옳다고 규정할 때 더 많이 일어난다. '있습니다'(×), '예/아니오'(×), ' 몇 월 몇 일'(×), '내가 할께'(×)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예들의 밑줄 친 부분은 모두 맞춤법에 어긋나는 표기이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맞춤법에 의해 '깨끗이'만 맞다고 규정함으로써, 우리 국민은 무식하게 보이지 않기 위해 모두 공부를 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공부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어떤 사실의 학습은 그 배경이나 원리를 이해할 때 쉽다. 그러나 '깨끗이', '있습니다', '아니요', '며

---

7) Mühlhäusler(2002: 385)에서도 민족 국가들의 언어적 생태계를 정리(streamlining)하려는 지속적 경향이 있으며, 결과적으로 수많은 군소 말투(smaller ways of speaking)의 주변화와 절멸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칠', '내가 할게'로 써야 옳은 이유는 국어학자만 안다.[8] 국어학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외울 수밖에 없다. 외우더라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잊혀진다. 왜 그렇게 써야 하는지 원리나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다. 맞춤법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마 띄어쓰기일 것이다. '띄어쓰기'에서는 '띄어'와 '쓰기'를 붙여 써야 하고 '띄어 쓰세요'에서는 '띄어'와 '쓰세요'를 띄어 써야 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국어학자가 아니라면 거의 없다.

한글맞춤법이 어려운 이유는 여기에 있다. 뜻의 이해에 아무런 장애를 일으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의 표기만이 옳으며, 국어학적 설명을 이해할 수 없다면 그저 외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혼란'은 기우일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요구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이다. 세종이 한글을 창제한 것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함이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한글맞춤법은 '국어가 어렵다'고 생각하게 하는 대표적 원인 중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9] 또 하나의 권력이 되어가고 있다. 사람의 능력을 판단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맞춤법의 존재 이유는 표기의 통일보다는 가독성을 높이는 데에서 찾아야 할 것이며, 사용자의 편이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소통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수 표기를 인정하는 등의 과감한 수정이 필요하다.[10] 혹자는 복수 표기가 검색

---

8) 사실 국어학자들도 맞춤법 문제에는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한다. 게다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

9) 국어학을 전공하는 필자에게 학생들은 종종 '선생님께는 메일 쓰기가 겁나요. 혹시나 틀렸을까 봐서…'라고 말한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글맞춤법에 대한 강의를 하고 나면 거의 어김없이 듣게 되는 말은 '국어가 참 어렵네요'이다.

10)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항목들이 그러한지에 대해 기초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을 어렵게 함으로써 비경제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요즘 웬만한 포털 사이트에서는 맞춤법에 틀리게 입력해도 검색이 가능하며, '혹시 이것을 찾으셨나요?'라고 물으면서 올바른 표기를 보여주기까지 한다. 오히려 어려운 맞춤법이야말로 그것을 학습하고 지키기 위해 들이는 시간과 비용으로 인해 더 비경제적이다. 복수 표기 인정으로 인한 혼란이 우려된다면, 한글맞춤법을 강요하기 이전에, 먼저 복수 표기를 허용한 결과가 어떠할지 조사해 볼 일이다.

2.2. 국어발전 기본계획

2005년 1월 27일 국어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같은 해 7월 27일 국어기본법 시행령이 시행되었다. 국어발전 기본계획은 국어기본법 제6조 1항에 의거하여 국립국어원에서 2006년 12월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중단기적 언어정책을 공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계획의 추진 목표, 3대 중점 추진 과제, 10대 추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추진 목표: '한민족 언어에서 세계 속의 언어로'
1) 창조: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통한 문화 창조 역량 강화
2) 소통: 한국어의 세계화를 통한 언어문화 권역 확대
3) 나눔: 다원주의 언어정책을 통한 국가 성장 동력의 지속 창출

3대 중점 추진 과제
1)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체계 정비
2) 동북아 지역 거점 기반 한국어 세계화 전략 추진
3) 다국어 지원 한국어 학습용 웹사전 편찬'

10대 추진 과제
1)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한 국가 언어 정책 확산

2) 남북 언어 교류 확대 및 국제 교류 협력망 구축
3) 소외 계층을 위한 언어 복지 시책 강화
4) 국어 사용 환경 개선과 국민의 의사소통 증진
5) 국민의 국어 능력 증진 여건 조성
6) 언어 사용의 다양성 조사
7)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비 및 맞춤형 사전 편찬
8) 국어 정보망 구축과 통합 정보 시스템 운영
9) 국어 문화유산의 보전과 한글의 산업화
10) 국어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 강화

위에 의하면 국어발전 기본계획의 추진 목표는 세계화를 표방하고 있으며,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을 통한 문화 창조 역량 강화', '한국어의 세계화', '국가 성장 동력의 지속 창출'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주요 과제들에도 관련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국어발전 기본계획의 기본 골격은 국민의 국어 사용능력을 증진시켜서 문화 창조의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어의 세계화, 한글의 산업화 등을 통해 세계 속의 언어로 발돋움하겠다는 것이다. 다분히 내셔널리즘적이며, 글로컬리즘적 사고는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더욱이 '국민의 국어 능력 향상', '올바른 국어 사용', '국어 사용 환경 개선과 국민의 의사소통 증진', '표준국어대사전의 정비' 등은 표준어 정책의 확대를 의미한다. '언어 사용의 다양성 조사' 과제의 추진 목적의 하나로 '급격히 소멸되어 가는 민족어의 권역별 지역어 조사를 통해 다양성을 보존하고 국어연구와 문화활동 자료로 활용'이 제시되어 있는데, 여기에 나타난 방언에 대한 시각은 '활성화'가 아니라 '보존'의 차원이며, '국어연구와 문화활동의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언어정책은 '중앙과 지방의 지배/종속 관계 폐지'를 추구하는 글로컬리즘적 사고와 심각하게 배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1]

---

11) '사회 방언'이라는 개념이 있듯이 '방언'을 사회적 의미로 해석하면, '소

이와 관련하여 국어의 발전이 과연 표준화에 의해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12] 발전과 창조는 다양성이 허용될 때, 즉 자유롭고 다양하게 표현을 모색할 수 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김중순(2009: 62)에서는 '단일화나 균일화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요구와 어긋날 뿐만 아니라, 경제의 지속적 발전의 원동력인 창의적 사고를 감퇴시킨다'고 지적한다. 표준화의 목적은 '변이를 제거하고 단 하나의 체계만을 사용'하도록 하는 데 있다(Romaine 1994:88)는 점을 고려하면, 표준화는 오히려 국어의 발전과 문화 창조를 가로막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한편 국어발전 기본계획의 시각은 '2000년대 들어서 사회 각 분야에서 외래어·외국어의 오남용, 대중매체·인터넷 통신언어의 비규범적 언어 사용 등 사회적 의사소통을 저해하는 국어 사용 환경의 악화 요인 점증', '국어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인식 약화가 인터넷에서 언어 파괴 등으로 나타남'이라고 국어 환경을 분석함으로써, 외래어 및 인터넷 통신언어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전명미·최동주(2007: 48,53)에 조사된 바에 있듯이, 2002년부터 2004년 사이 생겨난 신어 가운데에는 외래어가 가장 많으며, 이중 한국어 화자들이 외래어를 사용하여 만들어낸 신어가 절반에 가깝다는 점(분석 대상 외래어 491개 중 45.6%에 달함)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신형(2009: 531)에서는 외래어가 국어에서 이미 '자생력'을 갖게 된 언어 현실을 직시하고, 외래어 사용을 '표현의 다양화'라는 관점에서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외 계층을 위한 언어 복지 시책 강화'와 같은 과제는 바람직한 방향임은 물론이다.

12) 좀더 근본적으로 '국어의 발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주장한다. 순화의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포용의 관점에서 재고해 볼 필요도 있는 것이다.

'인터넷 통신언어' 역시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일은 아니다. 김중순(2009: 49-50)에서는 '철자법을 가지고 장난을 치려면 낱말과 소리가 어떻게 연관돼 있는지 충분히 이해해야 하고, 어느 방법이든 말과 글에 많이 노출되면 그만큼 언어 능력은 향상된다'는 데이비드 크리스털 교수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철자 파괴'와 같은 문자 메시지가 언어생활에 별로 해롭지 않으며, 사용자들의 언어구사 능력을 오히려 향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표현은 영어에도 있고(CU2NITE; See you tonight, TTYL; Talk to you later) 독일어에도 있으며(김중순 2009: 49), 인터넷이 없던 오래 전에도 있었다. 이덕일(2004: 99)에서는 정조와 정약용과 나누었던 말장난을 소개하고 있는데, 다음은 일부를 옮긴 것이다.

> "정조는 숨돌릴 틈을 주지 않고 '보리뿌리 맥근(麥根: 보리뿌리) 맥근([매끈 매끈])'이라고 다시 문제를 던졌고, 정약용은 '오동열매 동실(桐實 : 오동열매) 동실'이라고 응수했다."

이 말장난은 한자음이 우리말 부사의 음과 일치함을 이용한 것으로, 한자의 뜻과 음의 분리를 활용한 놀이이다. 훈민정음 창제 이전의 차자표기 역시 상당 부분 이러한 방법을 사용한 것이다. 또한 오늘날 각종 상품명('2080'<치약>, 'e-편한 세상'), 디자인 등에서도 유사한 방법이 활용되고 있는데, 소리와 음의 분리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형을 이용하기도 하며, 숫자, 외래어까지 재료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방법보다 확대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느날 갑자기 생겨난 현상이 아니라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보편적이며, 차츰 진화해 온 언어 및 문자 사용방식인 것이다.

3. ‘문화 창조의 동력’으로서의 국어

김중순(2009)에서는 ‘한국어가 갖는 문화 창조의 동력을 창조 계급이 가진 아우름과 일굼과 풀어냄의 원리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하고, ‘아우르는 한국어’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지방언어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표현들, 동아시아 공동문명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풍요로운 어휘들, 그리고 21세기 디지털 문명을 실어나르는 언어’까지 아울러야 하며<‘통합’>, ‘일구는 한국어’와 관련해서는 한국어를 ‘객관화 혹은 타자화’해야 하며 ‘한국어로 창조적 학문’을 할 것을<‘참여와 공유’>, 그리고 ‘풀어내는 한국어’와 관련해서는 이야기 풀어내기(story-telling)<‘이야기’>를 강조한다.

국어가 ‘문화 창조의 동력’이 되고, ‘한민족의 언어에서 세계 속의 언어로’ 발전하고자 한다면, ‘아우름’과 ‘일굼’과 ‘풀어냄’을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는 글로컬리즘적 사고와 맥을 같이 한다. 글로컬리즘 속에 ‘통합’, ‘참여와 공유’ 그리고 ‘이야기’가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방언을 아우르고, 정겨운 어휘들을 사용하여 문화생활을 영위·공유하며, 그 속에 깃들어 있는 이야기를 풀어냄으로써 국어는 한층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온 국민이 모두 표준어를 사용하는 것은 결코 이상적 상황이 아니며, 다양성의 상실과 언어 생활의 단조로움을 의미할 뿐이다. 언어 사용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음성과 단어, 문법 등 모든 언어 층위에서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며, 전략도 선택된다(Verschueren 1999: 55-56). 어느 누구도 항상 동일한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며,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양한 목적을 위해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의 미묘한 차이를 활용하는 것이다(Wardhaugh 2006: 5). 방언의 풍부한 어휘들을 표준어에 포용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그러한 선택과 활용의 폭을 넓혀 준다.[13] 국어 정책에 글로컬리즘적 사고가 필요한 이유이다. '문화 창조 역량 강화'는 국민의 표준어 사용 능력 향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언어 사용에 가해지는 제약을 제거하는 데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표준어 정책의 확대는 언어 생활의 다양성을 제거함으로써 오히려 국어의 발전과 문화 창조를 가로막을 수 있다. 어려운 맞춤법 역시 '문화 창조의 동력'으로서의 국어에 장애 요소가 된다. 자신의 표현이 틀리지 않았을까 걱정하는 상황에서는 문화 창조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의 언어정책이 글로컬리즘적 사고에 좀더 관심을 갖는다면 중앙과 지방의 지배/종속 관계를 해소하고, 국어가 '문화 창조의 동력'이 되며, '한민족의 언어에서 세계 속의 언어로' 발전해 가기 위한, 좀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4. 맺음말

지금까지 국어 어문규범과 국어발전 기본계획에 대해 검토함으로써, 국어 정책이 지나치게 표준어 중심이며, 그러한 언어 정책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언어는 개방적이며 동적인 현상으로,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요소이다. 언어에 대한 제약은 우리의 삶에 대한 제약이라는 인식 하에서, 언어 표준화는 최소한의 것이어야 한

13) 이정복(2006: 28-29)에서는 인터넷 통신 언어 자료에 나타난 대구 지역 고등학생들의 방언 사용실태에 대한 연구를 통해 '생생한 입말을 그대로 표현하기 위해서', '재미있게 표현하기 위해서', '긴밀한 유대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표준말을 사용해야 한다는 언어 규범과 기성세대의 권위에서 벗어남으로써 심리적 해방감을 느끼기 위해' 방언을 사용함을 밝힌 바 있다.

다. 소통의 효율화가 평등에 우선할 수 없으며, 혼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전 국민에게 학습할 것을 강요하는 것은 비경제적이다. 국어가 '문화 창조의 동력'이 되고, '한민족의 언어에서 세계 속의 언어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정책은 글로컬리즘적 사고에 좀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본고의 의도가 표준어 또는 한글맞춤법이 폐지되어야 한다거나 국어 정책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주장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중앙과 지역의 격차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심각한 국면을 맞고 있다. 국어의 발전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국어 정책이 중앙과 지방의 지배/종속 관계를 강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해소하는 방향으로 좀더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글로컬리점적 사고의 필요성은 여기에 있다.

참고문헌

국립국어원, 『2005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 국립국어원, 2005.

김보경, 「표준어의 망상, 사투리의 망상」, 『당대비평』 26, 2004, pp. 61-73.

김세중, 「표준어 정책에 대하여」, 『새국어생활』 14-1, 국립국어원, 2004.

김정대, 「공통어 정책 - 표준어 정책의 새로운 모색」, 『2006년 언어 정책 토론회 자료집』, 국립국어원, 2006, pp. 27-38,

김주필, 「표준어 사정 기준과 표준어의 성격」, 『새국어생활』 14-1, 국립국어원, 2004.

김중순, 「문화 창조의 동력 한국어」, 『언어와 문화』 5-1, 한국언어문화교육학회, 2009, pp. 43-63.

김형배, 「현행 한국어 어문규정의 문제점 - 국어 상담 사례를 중심

으로」,『한민족문화연구』22, 2007, pp. 31-58.
민현식, 「표준어와 언어정책론(1)」, 『선청어문』 27, 1999, pp. 649-677.
_____, 「'새로운 표준어 정책'에 대한 토론문」,『새국어생활』14-1, 국립국어원, 2004.
박갑수, 「표준어 정책의 회고와 반성」,『새국어생활』14-1, 국립국어원, 2004.
안상순, 「표준어, 어떻게 할 것인가」,『새국어생활』14-1, 국립국어원, 2004.
이기갑,『국어 방언 문법』, 태학사, 2003.
이덕일,『정약용과 그의 형제들』, 김영사, 2004
이신형, 「외래어의 자생적 기능에 관한 고찰」,『새국어교육』82, 2009, pp. 511-534.
이정복, 「인터넷 통신 언어 자료에 나타난 대구 지역 고등학생들의 방언 사용 실태」,『우리말글』38, 2006, pp. 135-168.
이태영, 「지역언어의 중요성과 표준어 정책의 문제점」,『한국지방정부학회 2006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2006, pp. 391-408.
임규홍, 「개정 <한글 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그 잘못에 대하여」,『모국어교육(배달말교육)』13, 배달말교육학회, 1995, pp. 21-46.
장문석, 「글로컬리즘의 인문학, 그 가능성의 모색(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특별기획세미나(2009. 9.18) 발표요지)」, 2009.
전명미・최동주, 「신어의 단어 형성법 연구」,『한민족어문학』50, 한민족어문학회, 2006, pp. 37-70.
정진웅, 「서울과 지방 - 그 중심지향의 문화를 넘어서」,『당대비평』26, 2004, pp. 52-60.
조남호, 「국어 발전 기본 계획의 수립 경위 및 내용」,『새국어생활』17-2, 국립국어원, 2007.
조태린, 「계급언어, 지역언어로서의 표준어」,『당대비평』26, 2004, pp. 74-87.
_____, 「표준어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한말연구』20, 2007,

pp. 215-241.
최갑수,「유럽에서의 중앙과 지방」,『역사학보』190, 2006, pp. 175-200.
최경봉,「우리말 문화의 발전과 표준어」,『2005 언어정책 집중토론회 자료집』, 국립국어원, 2005, pp. 115-122.
_____,「표준어 정책과 교육의 현재적 의미」,『한국어학』31, 2006, pp. 335-363.
최동주,「동적 관점에서의 시제 연구」,『한국어학』43, 2009, pp. 51-68.
홍순권,「지역문화와 글로칼리즘(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특별초청세미나(2009. 4.23) 발표요지)」, 2009.
Chomsky, N. *Language and Problems of Knowledge - The Managua Lectures*. The MIT Press, 1988.
Crystal, D. *How Language Works*, Avery, 2005.
de Bot, K. “Introduction: Second Language Development as a Dynamic Process”, *The Modern Language Journal* 92-2, 2008, pp. 166-178.
Ellis, N. “The Dynamics of Second Language Emergence: Cycles of Language Use, Language Change, and Language Acquisition”, *The Modern Language Journal* 92-2, 2008, pp. 232-249.
Hopper, P. J. “Emergent grammar”, in M. Tomasello ed.(1998) *The New Psychology of Language-Cognitive and Functional Approaches to Language Structure*,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1998, pp. 155-175.
Lakoff, R. “Language and Woman’s Place”, in M. Bucholtz ed. (2004), *Language and Woman’s Place - Text and Commentaries*, Oxford University Press, 1975=2004.
Larsen-Freeman, “Chaos/Complexity science an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pplied Linguistics* 18-2, 1997, pp. 141- 165.
Mohanan, K. P. “Emergence of complexity in phonological development”, in C. Ferguson, L. Menn, and C. Stoel- Gammon eds.(1992)

Phonological Development, Timonium, MD: York Press, Inc., 1992, pp. 635-662.

Mühlhäusler, P. “Ecology of Languages”, in R. B. Kaplan ed.(2002), *The Oxford Handbook of Applied Linguistics*,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pp. 374-387.

Pinker, S. *The Language Instinct*, Harper Perennial, 1995.

Romaine, S. *Language in Society*,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Trudgill *Sociolinguistics - An Introduction to Language and Society* (4th edition), Penguin, 2000.

Verschueren, J. *Understanding Pragmatics*, Hodder Education, 1999.

Wardhaugh, R., *An Introduction to Social Linguistics*, Blackwell Publishing, 2006.

Glocalism and Language Policy

Choi, Dong-Ju

Language is an open, dynamic system and the most basic and important in human life. Language standardization should be reduced to the least one, as regulation on language is the regulation on our life. Language standardization is one of the main agent of inequality(Romaine 1994: 87). Efficiency of communication can not take precedence over equality. It is uneconomical to make all people study unnecessarily difficult orthography in worry of confusion. Korean language policy pursues extending language standardization, but it should take the glocalistic viewpoint in order for Korean to be driving force for culture creation and to develop from the language of Korean nation to the language among world languages.

Key words : Glocalism, Language Policy, Korean Language Standardization, Korean Orthography, The Basic Plan for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Language

최동주
영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주소: 경북 경산시 대동 214-1
전화번호: 053-810-2125
전자우편: djchoi@ynu.ac.kr

이 논문은 2009년 10월 31일 투고하여
2009년 12월 10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09년 12월 31일 간행함